

공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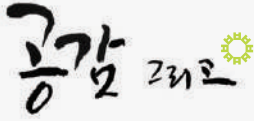


문화예술정보지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6 Spring 2020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6 Spring 2020

통권 36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20. 4. 10.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문진우 신용철 심창신 양화니 이연승 이재희 홍동식

편집기획 조형수 박슬기

디자인 및 제작 효민D&P 051-807-5100



최정은 - 너를 위한 나의 의무
인형부품 외 혼합매체,
가변설치, 2019

센서로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누웠다 섰다를 반복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으로, 구조물이 수평이 될수록 수백 개의 눈꺼풀은 감겼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뜨기를 반복한다. 이는 친숙한 대상을 그로테스크한 미학으로 낯설게 표상하면서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의 연캐니를 통해 기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고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고자 시도한다.

- 현오아(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평론글 발췌

CONTENTS

04

여는글

사진자료관 설립에 대한 제언

공감의 뱃고동

08

Space

박물관 안에 들어선 작은 공간
갤러리수정

16

Harmony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니
승리는 다시 굴레가 되고

22

Issue

코로나19 확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향유

26

People

마음을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고향사람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의 저자 하은지



공감리뷰

32

약한 연결을 민다
시오타 치하루,
《영혼의 떨림》展

돌아와요 부산향애

50

니, 그거 아냐?
우리 막걸리 이야기

그리고 재단

70

듣기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시민 의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56

누꼬?
그 집에는 막걸리 귀신이 산다
대한민국 최초 막걸리 명인
유청길

76

말하기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새 이름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B-Side

42

4차 산업혁명시대와
메이커 문화

62

거 가봤나?
골목마다 어린 소박한 정감
감천문화마을

사진자료관 설립에 대한 제언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사에서 보면 중요한 사진 활동이 많이 있지만, 미국의 대공황 때인 1930년대 'FSA'(농업 안정국) 소속 사진가들의 활동을 빼놓을 수 없다. 대공황으로 큰 피해를 본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 내로라하는 사진가들을 참여시켜 그 피해 실상을 사진으로 기록했던 활동이다. 위크 에반스, 도로시아 랭, 벤 샐, 칼 마이던스 등이 당시 활동했던 사진가들이다. 그들의 활동은 훌륭한 포토 다큐멘터리 운동으로 미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농업 안정 정책에도 크게 공헌했다. 그들이 7년여 동안 생산한 27만 2,000장의 사진 중 17만 장이 미국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 후세 사진가들에게 바이블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다.

“그들이 7년여 동안 생산한
27만여 점의 사진 중
17만 장이 미국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을 하는
후세 사진가들에게
바이블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다. 보관 중인 17만 장의 사진 중 10만 장이 FSA 이념에 맞지 않는다 하여 펀치로 구멍을 뚫려 무참히 킬 당한 사진들이란 것이다. '너무 예술적이어서, 초현실적이어서'가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폐기할 때의 이유들이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사진 속에 객관성보다는 사진가의 주관적 사상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 사진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게 아웃되었던 펀치 사진들은 다큐멘터리를 넘어 사진 아카이브, 예술사진, 사진사, 사진철학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비비안 마이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 사진가가 30년 동안 찍었던 필름을 현상도 하지 않은 채 박스에 담아 유료 창고에 보관해두었다. 창고비를 지불하지 못해 베틀시장에 나온 그 필름을 2007년 부동산업자 말루프가 단돈 400달러에 박스째로 사들이게 된다. 말루프는 필름의 원주인을 찾아 나서 소재지를 어렵사리 알아냈으나 마이어는 수일 전에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 과정을 말루프가 영화로 제작했는데, 2015 아카데미상 최우수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까지 오른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은 천재 사진작가라는 칭송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사진들이었다. 1950년부터 1980년 사이 거리에서 포착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으로 존 F. 케네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등 정치·종교·문화계 유명인사들의 모습도 포함된 소중한 사진들이었다. 그의 작품과 유품의 일부는 시카고대학에 기증되었다.

시대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부산의 대표 사진가 최민식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7주기 되는 해이다. 그는 생전에 사진 원판 10만여 점을

포함, 총 13만여 점의 자료를 국가기록원에 기증했다. 1957년부터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서민들의 생활을 포함해 당시 시대상을 기록한 사진들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진연감에도 수록되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그의 자료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사진 작업을 몇 십 년씩 했던 작가들 중 이미 고인이 된 이들도 있고 지금도 하나 둘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생전에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작품은 일부이긴 하지만 기증 혹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시립미술관에 소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작가들의 작품이나 귀한 필름은 그렇지 못하다. 유족들이 활용 방법을 몰라 적당히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가 잘 안 되니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시대를 기록한 소중한 자료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진 아카이브’ 자료관 설립 공개 제언

작품의 시대적 가치는 기록성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 뿐만 아니라 예술사진에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예술작품은 시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많은 사진가들이 찍었던 사진자료들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예술적 가치는 당대에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물론 개인의 자료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데 관이 책임지고 보관해야 할 일은 아니다. 여유가 있다면 고인이 된 작가들의 자료 수집과 보관 및 관리 등 활용할 수 있는 사진자료관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까운 자료들이 사라지는 것을 뵈고 있고 있자니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쓴다. 현명한 방안 모색의 첫 제언을 이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보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고 싶다.



공감의 뻗고동

008 Space | 박물관 안에 들어선 작은 공간
갤러리수정

016 Harmony |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니
승리는 다시 굴레가 되고

022 Issue | 코로나19 확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향유

026 People | 마음을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고향사람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의 저자
하은지





박물관 안에 들어선 작은 공간
갤러리수정

글. 윤창수 사진가, 갤러리수정 대표

수정동 산복도로, 그곳에 오르기 위해 나는 고관 입구를 지난다. 고관이란 단어는 참 예스럽다. 매일 아침마다 산복도로에 오르고, 때로는 긴 산복도로를 지나다니는 86번, 186번 버스를 타면 동쪽으로는 서면과 가야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국제시장과 용두산공원을 만나게 된다. 그 중앙에 수정동이 있다.

» 수정아파트 2012년 외부 모습

수정아파트 안에 등지를 틈 대안공간 갤러리

수정동에는 나와 나이가 같은 아파트가 있다. 수정아파트는 1969년에 지어져 올해로 51년 된 장수 아파트이다. 이곳은 중앙복도식으로 앞집의 대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한 층에 16가구가 긴 복도를 끼고 연결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복도 중앙의 화장실 구역에 모여 있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수정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갤러리가 있는 4층까지 오르다 보면 현대건축주거 박물관에 들어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한때 내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나의 사진 주제가 된 곳이기도 하다. 아파트 나이가 50년도 더 넘었으니 아직 잘 살아있는 것에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년 넘게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나의 사진 작업은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수정아파트에 대안공간 갤러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멀리 부산항의 은빛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수정동 산복도로 주변은 한때 부산의 중심이었지만, 현대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옛 영화를 뒤로한 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빈집들이 늘어나는 이곳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는 많은 무명작가들이 그 작업의 산물을 발표하고 공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과 어울리는 전시공간을 찾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장르에 비해 사진은 더욱 더 그러하다. 나와 같은 사진가들이 꿈을 키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었다.

빈 공간이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5월이면 갤러리수정이 문을 연 지 3년이 된다. 벌써 서른 한 번의 전시를 마쳤으니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개관전은 '빈'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다. '비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며 다시 채워지길 기다리는 순간'이다. 점점 비어가는 산복도로 주변이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전시였다.

갤러리수정은 부산과 경남,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진작가의 전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의 갤러리와 교류가 시작되어 부산의 신진 작가를 발굴, 소개하게 되었다. 지역작가에게는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서울과 부산의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많은 전시들 중에서 주민들의 오래된 앨범 속에서 잠자고 있던 추억을 끄집어낸 '추억앨범'과 산복도로의 작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을 꾀는 아이들'은 지역주민들과 연결된 기획으로 더욱 의미 있는 전시였다. 지난해 연말 사진가 3명이 바라본 고양이와의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고양이에 위



» 윤창수 사진전 오프닝



» 갤러리수정

로 받다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했음에도 가장 핫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전시로 많은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조금 느리게, 때로는 불편함에서 함께 찾는 미래

갤러리수정은 어느덧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찾아오는 갤러리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래된 아파트 내부에 위치하고, 또 개인이 만든 문화공간이어서 오픈 당시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갤러리는 문화면에서 주목을 받아야 마땅한데 사회면에서 더 큰 호응을 얻었다.

갤러리수정이 만들어지고 3년이란 기간 동안 서른 한 번의 전시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관람객이 다녀갔다.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도 이곳을 찾기 힘들어하고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도 헤매곤 한다. 계단이 많고 골목이 많아서일 것이다. 갤러리수정을 만들면서 내건 슬로건이 '조금 느리게 때론 불편하게'이다. 산복도로에서 이러한 슬로건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잘 안다. 그동안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많은 성공을 이루어냈지만, 그 성공은 많은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복도로는 계단이다. 집과 집을 연결해주는 것도 계단이며 많은 계단을 올라야만 산복도로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승용차나 버스, 택시를 타고 오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산복도로에는 집 앞에 승용차가 도착할 수 없는 곳들이 많다. 그곳들엔 더 편리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이제 조금씩 느리게 생활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불편함을 함께 가져보자. 불편함은 결코 참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미래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수정아파트 주민들 속으로 스며들기까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으며, 다세대(아파트) 주택에서 충돌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갤러리가 만들어지기 약 5년 전, 2012년 사진 작업을 위해 20여 년 만에 다시 수정아파트로 돌아왔다. 나의 사진 작업은 아파트 내부를 촬영해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때 나의 모든 신상정보는 물론 사진작업의 목적과 의미를 담은 전단을 만들어 아파트 각 세대에 돌렸다. 아파트 입구 슈퍼에도 전단을 붙여놓고 오가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노크하고 또 노크해도 아파트 문은 잘 열리지 않았다.

3년 동안 주말이면 계속해서 수정아파트를 찾았다. 하루 종일 다니며 아예 촬영조차 안 되는 날도 많았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집을 공략해 설득시키고 그렇게 도움을 준 이들이 한 명, 두 명이



› 김재수 작가 오프닝



› 김효선 작가와 윤창수 관장

» 갤러리수정 입구에서 전시작가와 함께



» 이경희 작가와의 대화



» 이갑철 작가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하고 있는
많은 무명작가들이 그 작업의
산물을 발표하고 공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해지면서 지금 갤러리가 들어선 4동에서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로 2015년 1월 전시를 했고 다시 2년이 지난 2017년 갤러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주민들에게 협조와 부탁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를 자식처럼 대해주던 몇몇 어머니는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나무라기도 했다. 그러한 소통의 시간이 지금도 갤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떠올려보면 모 방송국 TV 예능 프로그램인 ‘한끼줍쇼’의 원조는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객에게 더 가까이, 작가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공간

그 다음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운영자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좀 어렵다. 갤러리수정은 아주 사소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소규모 대안공간에 불과했다. 나 역시 돈 없는 가난한 작가였기에 나 같은 사람이 전시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이 정도의 공간도 괜찮겠다고 여겼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직접 철거에서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혼자 힘으로 하다 보니 3개월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 그때의 나는 시간이 많았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잘 해결해야 앞으로 더 유익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후원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후원자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이다. 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올해도 신인작가 공모를 비롯하여 의미 있는 전시를 많이 기획하고 있다. 3주년을 계기로 관객에게는 더 가까워지고 작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대안공간이 되길 희망해본다. 갤러리수정은 작은 갤러리다. 그러나 이곳에서 전시를 해보면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님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좋은 작품은 어떠한 공간에서도 빛난다’고 생각한다. 누구든 힘들게 오르고 가면 또 오고 싶은 곳을 알게 되는 갤러리수정을 자부한다. 갤러리수정의 문은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려 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니 승리는 다시 굴레가 되고

글. 임근준 미술·디자인 이론/역사 연구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역병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있다. 그런데 복미의 나이 지긋한 게이운동가들은 몹시 차분한 모습이다. “정부가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방치하다니 놀라워? 이런 일 처음 겪는구나?”라는 내용의 이미지 컷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세태를 시니컬하게 풍자하기도 한다. 1980년대 ‘에이즈 대위기’ 시절에 이미 이를 능가하는 공포와 혼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시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새바람

북미에서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이 본격화했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중반까지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문화예술운동은 '흑인 인권운동'을 모방했다. '의사-인종적 집단'을 표방하는 방식의 LGBT 운동 전략은 최초 종족 의식의 고취와 함께 잘 작동했다. 하지만 에이즈 대유행 시대가 오자 성해방 논리를 바탕으로 한 형제애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낸 이들은 유대계였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유대계 게이들은 '홀로코스트'(holocaust,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를 극복해낸 서사를 전유해 게이 종족의 생존 드라마를 연출해냈다.

퀴어 정치학과 퀴어 문화예술운동이 전개된 것은 LGBT 운동이 '의사-홀로코스트 정치학'으로 무장한 이후의 일이었다.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하고 탈냉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LGBT 정치학에도 뒤늦게 포스트모더니즘, 즉 후기 구조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었다.

전통적으로 시민권 운동의 영향권 아래 있던 게이·레즈비언 운동과 이론에 대한 반발을 전제로 하는 퀴어 진영은 타자성과 비정상성의 긍정을 통한 하위주체의 새로운 연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또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통해 정상성을 기동시키는 이성애주의와 가부장제도 문화의 해체를 추구했다.





영화·정치·문화계 새로운 대안적 비평 등장

정치·문화 이론 쪽에서는 1993년 출간된 '퀴어 플래닛의 공포: 퀴어 정치학과 사회 이론'(Fear of a Queer Planet: Queer Politics and Social Theory)이 대대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마이클 워너(Michael Warner)가 편집한 이 앤솔로지는 1993년 출범한 빌 클린턴 정부가 재야의 다문화주의를 통치 전략으로 포용할 때, 새로운 대안적 비평의 길을 제시하며 저항 운동에 자양분을 공급했다. 유로화 공동체가 합의했던 1998년부터는 '게이 그리고 게이 이후'(Gay and After) 같은 '포스트-게이 비평'이 나타나 근대적 동성애자 정체성의 해체, 즉 정체성 정치학의 극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동성혼 법제화, LGBTQ의 대전환점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의 'LGBTQ(+Questioner, 성적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의문을 지닌 사람) 문화는 신주류의 지위에 올랐다. 2015년 미국에서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지면서 대세를 굳혔다. 2019년 6월 30일 뉴욕에서는 '스톤월 항쟁'(스톤월 항쟁은 1969년 뉴욕 게이바 '스톤월'에서 성소수자들이 경찰의 탄압에 맞서 집단 항의 및 거리 투쟁을 시도한 최초의 사건) 50주년을 맞아 '월드 프라이드' 축제가 진행됐다. 여기에 주요 정치인을 포함해 300만 명이 참가했고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이 스폰서로 나섰다. 이때 LGBTQ 고객들에게 잘 보이려던 다국적 기업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6색 무지개로 매장과 광고판을 치장하는 바람에 베테랑 운동가들조차 지나친 상업화를 비판했다. 2015년은 대전환점이 되었다. 이때부터 복미를 중심으로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크게 신장됐고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자인 케이트린 제너,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전환자인 슈일러 베일러 등 여러 역할 모델이 등장해 주류 미디어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면으로는 동성혼 법제화 이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과 페미니즘 이슈가 소셜미디어상에서는 LGBTQ 이슈를 대치했다고 볼 수도 있다.

변화하는 한국 젊은층, 차별금지법 제정 84.6%가 찬성

아시아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졌고 일본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동성 커플을 동반자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혼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아 투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태국에서는 2018년부터 동성 커플을 동반자법으로 인정해 각종 세금 감면,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수적인 한국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은 감지되고 있다. 동성혼 법제화에 28.1%가 매우 찬성, 39.1%가 다소 찬성의 의견을 냈다.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53.3%가 찬성

LGBTQ 사회와 그 문화예술은 '게이 남성 집단의 멸절'이라는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딛고 오늘에 이른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공포와 위기가 거의 사라진
오늘의 상황에서 LGBTQ 사회와 그 문화예술은
더 작은 단위들로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





했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84.6%가 찬성했다. 이 결과는 올해 3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20세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 조사로 발표된 것이다.

LGBTQ 연합전선 해체, 성소수자 역사 기억해야

2010년대 중반의 국제적 동성혼 법제화 이후, 수십 년간 힘을 모아왔던 LGBTQ 주체들은 연합 전선을 해체하며 서로 반목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가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유럽과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LGBTQ들은 '성공 이후의 소외'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에 봉착해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이민자 2~3세 LGBTQ들이 처한 진퇴양난의 환경은 한국 LGBTQ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LGBTQ 사회와 그 문화예술은 '게이 남성 집단의 멸절'이라는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딛고 오늘에 이른다. 하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공포와 위기가 거의 사라진 오늘의 상황에서 LGBTQ 사회와 그 문화예술은 더 작은 단위로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 앞 세대의 LGBTQ가 거둔 성취와 그 역사는 학교와 박물관에서 잘 교육되지 않으니,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지 않는다. 미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이 공립학교에 LGBTQ 관련 교육 과정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유소년 청소년 세대의 무지와 그로 인한 집단 기억의 망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향유

글. 윤영하 시각·조형 예술가, 고신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중국 후베이 성의 성도 '우한'(武漢) 발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깊은 '우환'(憂患, anxiety)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글로벌 경제, 문화예술계 등 전 영역에 걸쳐 어마어마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더욱 예측 불가의 고통과 손실은 가능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의 위협

사스(2002년)-신종플루(2009년)-메르스(2015년)에 이어 점점 그 간극을 좁혀가며 바야흐로 전 세계는 현재 '기생충(寄生蟲)'보다 더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 모양을 한 '갑질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휩쓸고 간 '흑사병'(페스트)으로 유럽 인구 5분의 1이 줄어든 대재앙 이래 19세기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으로 번져나간 콜레라 역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세기 초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4,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비극 또한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다.

2020년 3월 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300명, 사망자도 50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선두로 바야흐로 총 10만 명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여 꾸준히 퍼져나가는 중이다. 자고 일어나면 연일 갱신되는 마스크의 확진자, 사망자수 통계,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우리 국민은 누구 할 것 없이 지쳐 있고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이 같은 상황은 갖가지 변화와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의 희생과 공포를 그려내고 있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컨테이션', 수년 전 좀비 영화로 인기를 끌었던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역시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영화이다. 공교롭게도 두 영화 모두 최근 가정에서의 재시청 붐이 일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기생충'(흑백판), 그리고 반도를 넘어 헐리웃에서도 007 시리즈 신작 '노 타임 투 다이'가 개봉을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치명타를 입은 공연예술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월 공연매출액이 국내 최초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확산 전인 올해 1월 400여억 원 대비 그 절반인 200여억 원으로 공연 예매 건수 또한 약 100만 건에서 약 50만 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1월 영화 관람객수는 1,684만 명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2월 1~2일(주말)에 82만여 명, 다음 날인 2월 3일에는 13만여 명으로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컴백 기자회견을 유튜브로 대체했다. 이어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월드투어 서울 콘서트도 취소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올해 4월 예술의전당에서 개막 예정이었던 연극 작품 조연출을 맡고 있던 딸이 공연 취소 결정으로 한숨 섞인 넋두리를 전하자 "지금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니 감염이나 조심하며 오히려 주위를 돌아보고 내실을 기하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문화 향유

지역문화예술계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아트바젤의 부산 유치 가능성도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흐지부지됐다. '아트바젤 홍콩'은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아트바젤 온라인 뷰잉룸 서비스'로 대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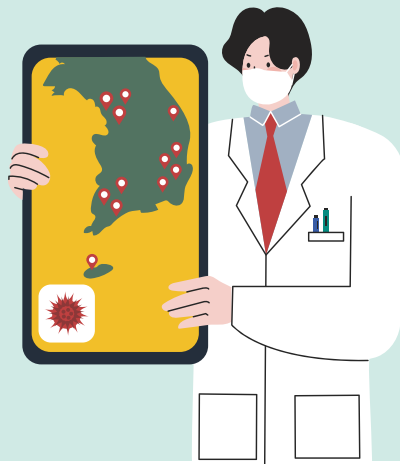
'2020 BAMA'도 연기됐다. 코로나19의 심각 수준 발표 이후 전국 국공립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은 거의 예외 없이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며 모두 휴관 조치됐다. 지금 시민들은 TV나 스마트폰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관련 소식을 체크하며 마스크를 낀 채 겨우 공원 산책이나 조심스레 나갈 뿐이고 일체의 문화생활은 중단한 지 한참 되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내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이에 개의치 않고 지난 2월 말 전시장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전 관람객 마스크 의무 착용 확인 후 입장을 허용했다. 또한 도슨트(해설사) 투어를 생략하고 기본 안전조치를 한 뒤 백남준을 비롯해 앤디 워홀, 프란시스 베이컨, 데미안 허스트, 무라카미 다카시 등의 걸작으로 기획한 '영원의 숲'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 외 서울 인사아트센터의 제주작가전과 일우스페이스의 수상작가전도 개막식 없이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아라리오 서울 삼청동 갤러리 역시 소수 관람객만 입장하는 '프라이빗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두려움을 떨치고 생각의 위기를 경계하라

포스트모던 철학이 급속히 확산될 즈음, 지난 세기말을 배경으로 몇몇 이론가들 사이에서 소위





‘예술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중 저명한 프랑스 미학자, 장 보드리야르(J. Baudrillard)가 1996년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리베라시옹(Liberation)지에 실은 ‘예술의 음모’(Le complot de l’art)라는 글에서 예술의 위기적 징후로서 현대예술의 이중성을 논하며 무가치, 무의미, 비의미를 요구하고 지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브 미쇼는 다소 중립적으로 완화된 입장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마디로 예술의 위기가 아니고 예술에 대한 우리 생각의 위기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중적이다. 이 위기는 예술의 개념에 관한 것이고 예술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관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견잡을 수 없는 과전염병 확산으로 온 세계가, 전국이, 지역공동체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맴도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심을 과감히 떨쳐내지 않고서는 사태의 원만한 종식과 해결을 가져오기보다는 일을 더 끔찍할 확률이 높다. 아마도 모든 일이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큰 약점이자 딜레마인 ‘확증 편향’, ‘포비아(phobia, 공포증)를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 정체 없는 과바이러스에 마냥 농락당하고 희생당하며 죽음과 진배없는 삶을 소모하며 살지 모를 일이다.

마음을 열면 만나는 사람마다 고향사람

하은지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의 저자

글. 이연승 세이브트리 문화기획팀, 본지 편집위원

영도 흰여울 마을에 들어 온지 다섯 달이 조금 넘어간다. 바닷가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나는 처음 느껴보는 습기에 적잖이 당황 했었다.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제습기부터 구매하고 곰팡이 방지제를 뿌려 되었는데. 그 땐 이곳이 떠나온 곳에서 그다지 먼 것도 아니었는데 꼭 타향살이를 하는 것 같았다. 색다른 바닷바람과 겨울의 건조함을 느낄 무렵 영도에서의 타향살이를 기록한 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역 문화에 대한 기록을 위한 독립

B-Local은 지역 문화에 대한 기록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필명처럼 만들었다고 한다. 그가 생각하는 지역의 기록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하는 작업이 건물을 짓거나 길을 닦듯이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작업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와 사람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해요. 지역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도시나 공간에 대한 계획이 이뤄진다면 지역민은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전 힘들다고 봐요.

그는 지역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앞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때 참고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누군가는 계속해야 하는 일이고, 변화하는 사람과 공간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도, 타향에서 고향으로』가 발간되었다.

영도 문화도시 사업단을 통해 '영도 디스커버리 총서(이하 총서)'의 생활편을 맡아 줄 것을 제안 받았어요. 총서는 영도의 다양한 문화를 발굴하고 기록해 대중과 교감하기 위해 교양서 형태로 발간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평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이라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MEMORY / BENCH
 지역/문화

하은지

전라남도 해남, 무안, 목포
 한국해양대학교 지역학 전공
 KBS 부산방송총국 구성작가
 영도 강강이예술마을 조성사업
 - 『강강이마을 100년의 울림, 산업편』 공동저자
 주민자서전, 마을신문 동아리
 현 B-Local 대표

저자 본인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그런지 그는 조금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한다.

고향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서인지, 저만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인지, 익숙하지 않으니 모 든 게 새롭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처럼 15년 산 사람 말고 타향에서 영도로 와 서 4~5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은 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지역을 경험했을 텐데, 그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엔 또 다른 영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향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었죠. 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기획하고 구성한 것 같아요.

영도, 사람을 품다

영도에는 제주도, 전라도, 강원도, 이북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각기 고향이 다른 분들을 선정해 영도라는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본래 고향과 영도라는 지역의 차이를 통해 구술자 분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영도의 한 부분을 알고자 했다고 한다.

영도에는 다양한 향우회가 있습니다. 먼저 거기를 찾아가 많은 이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추천도 받았습시다. 고령의 대상자를 찾아 본인의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이들을 우선했어요. 직업도 고려해 영도와 관련한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여덟 명이 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도가 참 매력 있는데, 유명 관광지만으로 영도를 설명하면 공허해요. 그런데 책을 만들어놓고 보니 이 책에 등장하는 여덟 분이 영도의 매력들을 하나하나 답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나와 우리 가족을 품어준’(서선자, 양영자, 이옥자), ‘바다가 풍요로운’(해녀 김숙희, 선장 정삼덕), ‘공기가 좋은’(버스기사 양영기), ‘평생 기술을 가르쳐준’(이진희), ‘피가 끓고 정이 넘치고 감정이 출렁이는’(퇴직 형사 박동진) 곳이 바로 영도예요. 맛집에 검색할 때 원주민이 자주 가는 곳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영도에 대해 궁금하다면 영도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한 번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도, 문화도시의 운명을 타고나다

영도구는 2020년부터 약 160억 원의 예산으로 5년간 진행되는 문체부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특히 영도 디스커버리 총서는 영도 문화도시 사업 기간 동안 영도의 역사, 사람, 민속, 산업, 건축,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총서를 연간 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



학업 때문에 처음 들어온 영도
결혼 후 영도로 주소를 옮긴 지 15년
영도가 깊숙이 보이기 시작했다.
깡깡이에술마을에서의 3년 후
사람을 통해 고향을 본다.



정이라고 한다.

제가 영도에 꼭 필요하다 생각했던 부분과 영도 문화도시 사업이 선정되도록 이끈 플랜비문화예술 협동조합의 비전과 계획이 맥이 닿아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총서 프로젝트'가 저에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영도가 가진 매력이라 하면 크게 섬으로서의 독특한 환경, 독특한 역사와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풍부한 산업유산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펼쳐보면 더 많은 매력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매력은 대부분 공간이나 사람이 품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 그런 게 사라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공간과 문화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영도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중첩되어 있는 영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영도 문화도시 사업 기간은 5년인데요. 민간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함께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공유하고 영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에 알맞은 기간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도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도가 내어준 매력에 빠진 B-Local의 기록이 문화도시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굴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제 나름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인이 경험하고 체득한 이야기들이 모이면 지역의 문화는 훨씬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활자화시키는 작업을 주로 했는데 최상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2, 3차 콘텐츠로 가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 제 몫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다른 기록 방식도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꿈 리뷰

032 약한 연결을 믿다
시오타 치하루, 《영혼의 떨림》展



약한 연결을 믿다

시오타 치하루, 《영혼의 떨림》展

글. 정재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전임연구원, 부산민예총 기관지 <함께 가는 예술인> 편집위원
사진 제공. 정재운, 부산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전시포스터

뒤상의 '샘', 제도에 대한 도발

'연결'에 대해 얘기를 하려는데, 벌써 내 이름 뒤에 붙는 소속을 통해 '나'라는 한 개인이 담고 있던 몇 가지 연결점들이 드러나고 만다. 학술원 연구원과 잡지 편집자라는 연결점이 글쓰이의 개체적 실존을 모두 기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면의 글쓰이라는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못 연결점보다 의미를 가진다. 나는 주어진 상황 또는 코드 속에서 읽는 이로 하여금 신뢰할 만한 연결점을 제시한 것이다. 어느 동호회의 일원이거나 누구의 아빠와 같은 연결점을 제시했다면, 설령 그것이 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보다 우선하는 것이더라도 끊임없는 조정을 요구받는 사회·도덕적 관계에선 좀체 용인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복수의 실존을 가지며, 그것은 세상의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형성되거나 정의된다. 또한 제도는 사물들의 경계와 각종 관행을 설정한다. 뒤상의 '샘'이 전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느낀 놀라움은 미술제도에 대한 도발적인 논평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번기라는 기성품의 실존을 전시품으로 바꿈으로써 가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미술사와 비평,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틀로서 엄연히 존재하던(미술을 규정짓는) 관습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

'샘'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에 큰 영향을 끼친 20세기의 고전이 되었다. 덕분에 미술은 출렁이며 그 영역을 넓혔고, 새로운 연결점을 발견하기 위한 작가들의 열망은 다음 세기의 화두가 되었다. 시오타 치하루의 전시 '영혼의 떨림'에서 가장 먼저 만난 작품 '영혼에 대하여'는 예술 제작 주체로서 작가가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가 버렸을 때 가능한 예술의 자리에 대해 영혼의 존재를 빌려와 묻는다. '영혼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 것 같니'. 그가 암의 재발로 2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딸과 같은 나이인 열 살짜리 독일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동물도 영혼이 있을까, '내 몸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사라질까. 알다시피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뚜렷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매우 약한 탄성(彈性)으로 이어져 있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추측건대 그에게 있어 예술이란 누구도 만져본 적 없는 이 희미한 줄을 움켜쥐게 만드는 손이 아닐까.



» 영혼에 대하여

4-채널 HD 비디오 설치, 컬러, 사운드, 3분 14초,
5분 2초, 3분 10초, 4분 54초, 2019.



» 불확실한 여정 메탈 프레임, 붉은색 울, 가변설치, 2016/2019.

물음과 채움의 연결

<불확실한 여정>은 그의 바쁜 손이 만들어낸 역작이다. 영혼을 통해 현실과 내세의 연결을 모색했던 그는 전시장을 가득 채운 붉은색 였로 연결에 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때의 '채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밀도만을 나타내는 언어가 되어선 안 된다. 복잡하게 영킨 선(線)들은 압도적인 시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발 다가가 들여다보면 내뻘다가 꺾이며 형상을 이루어가는 선과 선 사이로 분절된 전시장 벽면과 천장 그리고 교차하는 또 다른 선과 선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작품더러 역작이다, 라고 단언한다면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그 주관적인 물음 앞에 시오타 치하루의 설치 작품은 여러 답을 들려준다. '불확실한 여정'은 붉은 실, 배 모양의 메탈 프레임이 제각각 구불구불한 의미의 주름을 거느리고 있어, 어떤 해석도 전면적으로 우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충실한 비평가를 자처하며 친절한 오독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작가의 독창적인 미적 사유를 무딘 비평언어로 논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나, 아직 전시를 찾지 않은 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랴.

다만 이 거대한 가변설치의 의도쯤은 추측해보고자 한다. 어떤 이미지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건, 우리의 내면과 그것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유 지점은 언제나 부분일 수밖에 없으며, 결코 전체일 수 없다는 데서 선입견이 작동한다. 선입견은 몇 가지 특정한 연결만을 강조하거나 내장 중요한 연결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 작가는 발생도 종결도 좇을 수 없는 연결을 보여줌으로써 깊이와 넓이에 관한 한정 없는 인식을 유도한다. 그렇게 해서 작가는 작가 자신과 수용자를 어떤 흠도 파이지 않은 매끈한 공간 위에 올려놓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다.

텃줄과 탄생의 연결

근래 걷기 시작한 아이가 붉은 빛 속으로 몇 발 옮기다 엉덩방아를 찧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자궁 이미지를 소환해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물론 내가 기거했던 그 태곳적의 자궁에 대한 기억은 모두 잃었지만 관념으로서의 자궁은 요령껏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작품 '육체적 확장'으로서의 나의 존재'는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의 경우처럼 관념으로밖에 떠올릴 수 없는 탄생의 순간과 직접 체험이 가능하지만 결코 서술할 수 없는 죽음 사이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디지털 프린트로 기록한 설치 작품은 교토의 한 사찰을 공간으로 삼고 있다. 천장으로부터 기다란 실을 내려놓고 그 끝에 텃줄을 매달아놓았다. 이와 한 뼘쯤 사이를 두고 바닥엔 죽음의 흔적인 재가 소복하게 쌓여있다. 이 설치를 통해 작가는 존재가 지닌 에너지의 순환과 윤회를 표현한다. 이를 보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작품이 딸깍, 하고 연결된다. 메리 켈리의 개념적 설치 작품 '산후 기록'이다. 작가는 아이가 엄마 젖을 떼는 과정을 갖가지 방법으로 기록함으로써 각자가 지닌 고유성 혹은 주체성은 실상 상호주체성이란 자장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의 작품은 주체 인식에 대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신화에 비판을 가하며 지배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현실과 가상의 연결

이 같은 도전이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오타 치하루는 베를린 장벽,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을 주제로 사진을 찍으면서 ‘벽’에 대해 고찰한다. 인간은 비약을 감행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족, 민족, 국가, 종교라는 공고한 벽(경계)을 쌓아올리는 존재다. 작가는 주체성이 개인의 외부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탐구를 작품 ‘벽’에 담았다. 영상 속에선 혈관으로 여겨지는 호스들이 어떤 나신을 휘감고 있고, 태아의 심장 박동이 배음(背音)으로 흐르고 있다. 병(病), 임신, 혈육 등과 같이 작품의 주제어는 확장을 거듭한다.

이 탐구에 대한 가능성의 확대인지, 세상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변화가 물결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201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현재 사용되는 인터넷은 곧 사라질 것이며, 새로운 방식의 정보소통 체계가 열릴 것이라 예측했다. 그것은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 현실과 가상이 소통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 즉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의 도래였다.

이 새로운 플랫폼의 시대에서 예술은 개인의 무한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꽃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벽의 목소리처럼 위험사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정보기술이 체제를 규정하고, 그 속에서 사물화된 인간의 미래는 그리 멀지 않은 오늘날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사유와 영혼의 연결

이번 전시는 도로잉, 각종 설치, 사진, 조각, 영상, 퍼포먼스를 망라하며 시오타 치하루의 초기 작품부터 다양한 일대기적 기획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며, 지금까지 300회 이상의 전시에 참여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독일 유학을 계획한 것은 19세 때, 일본 시가 현립 현대미술관에서 폴란드 작가 막달레나 아바카노비치(1930-2017)의 개인전을 본 직후였다. 그의 제자가 되려는 꿈으로 1996년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에 진학한 시오타 치하루는 이후 브라운슈바이크 예술대학,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수학했다. 독일행을 택하기 이전의 그는 교토 세이카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있었다. 그는 작품 ‘무제’를 통해 추상화에 도전하느라 고군분투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유화물감과 캔버스라는 소재의 오랜 역사적 깊이에 비해 자신의 작품은 가벼운 장난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무제’는 그의 마지막 유화가 되었다. 이후 그는 실을 주목했다. 중첩되는 무한한 가닥의 선들은 막연한 것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추어간다. 깊이와 높이가 형성되어 가는 구조물에서 최초의 선이었던 실은 면으로, 면에서 공간으로 나아간다. 작가는 한없이 어우러진 실을 관객의 눈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했다.

“그 시점이 되면, 저는 저 너머에 숨겨진 것을 들여다보고 진실을 만져볼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 유사성 대나무, 붉은색 페인트, 검정색 울, 설치, 1996. 기록사진: 디지털 프린트 인화, 2019.



» 공간과 시간의 반영 흰 드레스, 거울, 메탈프레임, 알칸타라 검은 실, 280*300*400, 2018.



» 내 몸 밖 소가죽, 브론즈, 가변크기, 2019.

그에게 실이란 더없이 물질적인 매질이면서 동시에 비물질에 닿는다. 작품 '유사성'에서 작가는 검은 실로 짠 편물에 붉은 물감을 떨어뜨린다. 물감은 실이 짜인 모양을 따라 나름의 규칙성을 갖고 바닥에 떨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 편재된 질서를 감각하게 된다.

앞서 말했듯, 작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죽음과 인접한 시간을 살고 있다. 그는 작가노트를 통해 '인간의 생명이 수명을 다하면 우주에 녹아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는 죽음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멸이나 공허의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의 융화 또는 연결이라 믿는다. 그 믿음을 진리라 가정한다면, 죽음이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된다. 죽음과 삶은 모두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심도 깊은 사유는 작품 '침묵 속에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유년의 어느 날, 시오타는 불탄 옆집에서 내놓은 새까맣게 그을린 피아노 한 대를 만난다.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이 그의 마음을 채운다. 다 자란 그는 세월 속에서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기억들을 되작인다. 어떤 것은 아무리 애써도 표현할 수 없지만 육화된 표현을 갖지 못한 것일 뿐 이 무형의 영혼은 우주 어디에 여전히,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추천 알고리즘과 ‘약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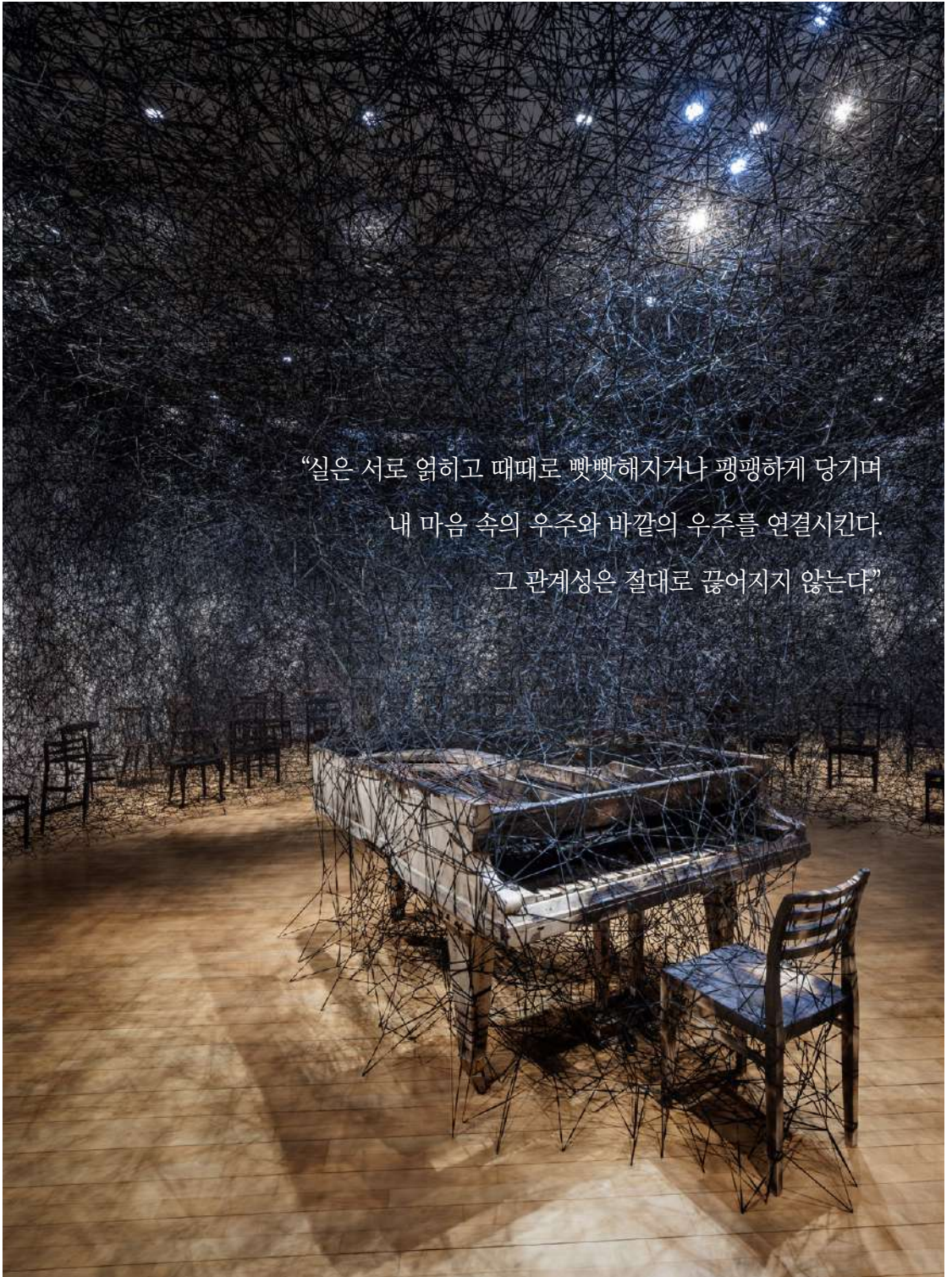
키보다 엄청 큰 직육면체 속에 드레스가 걸려있고, 알칸타라 검은 실이 이를 결박하듯 채우고 있다. 작품 ‘공간과 시간의 반영’은 감쌀 신체를 잃어버리고 공중에 떠 있는 의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의복은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만들어 입는 물건’이라는 역할이 소거되어 실존적 난항에 빠진 그 ‘어떤 것’이다. 작가는 관계를 통해 재조정되는 실존적 상황을 보여주며 의복이 신체가 되고, 이를 둘러싼 직육면체는 검은 실로 인해 신체를 둘러싸는 피부가 되는 아이러니를 표현한다. 내·외부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 그의 작업은 ‘내 몸 밖’ 같은 작품에서도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주제다. 파괴되어 나동그라진 신체 조각들 위로 넘마조각처럼 보이는 어떤 표피가 천장으로부터 길쭉이 내걸려있다. 분절된 신체를 통해 내·외면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해방된 연결은 탈주할 수 있는 용기에 닿는다. 현대 일본의 대표 논객 아즈마 히로키는 자기계발서를 빙자한 인문서 ‘약한 연결’에서 상호주체성을 인정하되 자신과 환경의 일치로부터 탈주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그는 약한 유대관계를 강조한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보고처럼 여겨지나 실제로 우리가 입력하는 검색어는 매우 한정적이다. 유튜브는 내가 지난날 열람했던 영상들로부터 추출한 정보로 집요한 추천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이 체계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데 이견은 없으나, 사용자는 어느덧 이 완벽한 엔진(환경)의 힘을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게 된다.

그는 익숙한 공간에 고정시켜 전형성을 양산하는 강한 유대를 벗어나 뜻밖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약한 연결’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을 보면서 그의 저작을 떠올린 것은 두 작가의 목소리가 조율된 감각과 지적 질서를 넘어 새로운 연결을 꿈꾼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 약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배타성을 벗고, 자신의 실존에 관한 능동적인 찾기를 수행할 수 있다. 장벽이 무너진 도시 베를린의 공사장에서 떼어낸 유리창들의 중첩을 통해 단절된 삶, 소통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담은 작품 ‘내부-외부’를 보자. 유리창은 문과 같이 공간을 내부와 외부로 단절시키지 않는다. 문이 강한 연결로 가능성을 제약한다면, 유리창은 약한 연결인 것이다.

‘약한 연결’의 가능성

마스크에 가린 우리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들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도 쉬 떠올리기 어렵다. 오직 신과 인간의 강한 연결만이 유효한 시대처럼 느껴진다. 그 강한 연결을 믿었던 자들에 의해 분명 어제까지 저만치 멀리 있던 죽음이 오늘 내 옆으로 바투 끌어당겨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순간, 우리는 약한 연결의 가능성 또한 믿는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이 나만의 외로 된 생각은 아닐 테다. 시오타 치하루, ‘영혼의 떨림’은 4월 19일까지인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



“실은 서로 얽히고 때때로 뺏뺏해지거나 팽팽하게 당기며
내 마음 속의 우주와 바깥의 우주를 연결시킨다.
그 관계성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 침묵 속에서 탄 피아노, 탄 의자, 알칸타라 검은 실, 가변크기, 2002/2019.

B - Side

042 4차 산업혁명시대와 메이커 문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메이커 문화

글. 박일환 (주)메이커창의공작소 디자인 전문회사 대표

증기기관에서 에너지를 얻은 1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과 소비의 2차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화혁명까지 진행되었다. 이처럼 현재는 3차 산업혁명이라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화혁명까지 진행되었고 3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촘촘히 연결, 제조업 기반 생산라인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킨 메이커 운동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두 축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산업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온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사물이 지능화됨에 따라 산업계는 자동화를 넘어 무인화가 이루어진다. 이는 제조업 기반에서 많은 직업 변화를 가져와 단순 기능직보다 창의적인 분야의 사람들이 각광받고 산업을 독점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사람과 사물, 그리고 세상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초연결성이 있다.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융합하게 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셋째, 초연결성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1인에 의한 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3D프린트,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1인에 의한 스마트 공장 설립 및 운영도 가능해지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 예측이 가능한 초연결 산업사회가 가속화되어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가 융합한 산업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 환경의 변화는 창의력 기반의 직관, 통찰, 감성의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창의적 감각을 갖춘 설계자들의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창의적인 메이커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문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메이커들의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커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메이커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언제든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메이커 문화가 확산되고 그 결과물은 개인 창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메이커의 활동 공간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다. 전국에 설치된 메이커스페이스도 메이커 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의 지원 아래 현재 120여 개소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50~60 개소씩 신규로 구축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언제나 개방 운영되며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오픈소스의 활용으로 값비싼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좋은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경쟁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도 메이커 문화 저변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및 기관, 지자체, 기업,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만드는 능동적 교육과정, 메이커 교육

메이커 문화 확산에 더해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현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메이커 교육을 위해 정부 및 기관, 교육단체들의 주도 아래 많은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메이커 운동의 기본 개념은 실생활 곳곳에 불편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나은 가치로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의 혁신 활동으로 협업을 우선시하는 것과 같다. 즉, 메이커 교육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학생 주도적으로 능동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창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보다 더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메이커 운동은 창업자 운동으로 본격 진화한다. 여기에 3D프린터와 코딩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기업이 정신을 보다 강력히 결합시켜 학교 밖 메이커 전문가 등의 인적자원과 메이커스페이스와 오픈 소스, 크라우드 펀딩 등의 사회적인 물적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며 놀이와 학습, 일의 경계를 허물어갈 수 있다. 이처럼 보다 창의적인 메이커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메이커 교육이다.

융합 교육(STEAM)과 메이커 교육

미국은 다양한 과학 실험활동과 창작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STEM 교육'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이니셜을 모아 'STEM' 교육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는 한국창의과학재단의 창의융합인재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예술'(Arts)을 추가, 'STEAM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술과 과학기술의 접목과 융합은 창의성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현재까지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본은 전문성, 창조성, 커뮤니티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타쿠 문화', 즉 최고 품질 추구의 장인정신 문화를 메이커 교육에 접목하고 있다. 중국은 메이커 교육을 '창객 교육'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 창업을 뜻한다.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서 메이커 문화 확산과 메이커 교육에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메이커들의 활동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는 메이커들의 아이디어를 발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도구들인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밀링머신, 기타 각종 공구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배우며 네트워킹하는 공간을 뜻한다.

문화소비 도시인 부산은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의 특색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서면에 있는 (사)부산섬유판션산업연합회의 '부산패브릭메이커랩', 부산진구에 있는 신발 메이커스페이스 '이노디어스', 중구에 자리한 예술가 협업 메이커스페이스 '원도심 창의공작소', 금정구에 위치한 코딩맘 스쿨협동조합의 '잼스랩 메이커스페이스', 부산대 창업·코워킹스페이스 '패스파인더 메이커스페이스', 부산역에 있는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메이커스테이션', 창업인재양성전문 '동명대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다.

B u s a n M a k e r S p a c e

부산 메이커스페이스

부산에도 특색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메이커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부산패브릭메이커랩



주소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더샵센트럴스타상가 B동 2층 · 202호

주관기관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bfml.or.kr>

연락처 051-714-1637~9

운영시간 평일 10:00~19:00, 토 10:00~16:00

- 패브릭을 활용한 아이디어 창작물 제작
- 핸드메이드 프로그램(DIY 키트, 손뜨개, 소품, 가죽 등)
- 쓰잉 장비 프로그램(한복, 인형, 재봉기 기초 등)
- 디지털 프로그램(DTP, 원단, 티셔츠 프린팅, 3D펜, VR 등)

메이커스페이스 이노디어스



주소 부산진구 백양대로 227 한국신발관 B1

주관기관 주식회사 이노디어스

홈페이지 www.inodius.com

연락처 070-4104-2616

운영시간 화-금 10:00~19:00, 토요일 09:00~18:00

- 신발 커스텀 제품 제작, 메이커 캠프, 리혁신 창업캠프, 신발창업학교, 플리마켓 운영
- 실크스크린, 가죽/면 프린터, 컴퓨터자수, 금속공예, 신발 커스텀 장비, 리소프린팅, 레이저커팅 및 컨퍼런스홀, 스튜디오, PC교육실, 디자인씽킹 등

원도심 창의공작소



주소 중구 동광길 42, 1-2층

주관기관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makerchang.com>

연락처 051-463-0909

운영시간 화-일 10:00~21:00

- 3D모델링, 가상현실, 디지털 웹툰, 문화예술 콘텐츠
- 예술창작활동교육, 직장인 등을 위한 직업 변경 교육
- 디지털 공방 초보 창업자 교육(도자기, 금속공예, 실크스크린, 레이저커팅 모형 제작 등)
- 청년메이커 창업동아리 운영(유투브 영상 제작 등)

**잼스랩
메이커스페이스**



주소 금정구 금정로 63-2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주관기관 코딩맘스쿨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zams.kr>

연락처 051-583-0669

운영시간 평일 13:00~22:00, 토 10:00~19:00

- 디지털메이커 교육(레고, 마이크로비트, 아두이노)
- 코딩 활용 나만의 움직이는 메이커 프로젝트
- 메이커 강사양성 프로그램, 평생교육, 학교교육
- 서버, 노트북, 3D프린터, 페이퍼커파 등 보유

**패스파인더
메이커스페이스**



주소 금정구 금강로 271-5 해산빌딩 7, 8층

주관기관 (주)패스파인더

홈페이지 <https://www.pathfinder.camp/>

연락처 051-582-9080

운영시간 멤버십 24시간(일반인 평일 9:00~22:00)

- 분야 : 메이커 창업, 코워킹스페이스
- 레이저 커팅기계, 3D프린터, 3D스캐너, 목공기계, 전자 관련 장비를 통한 하드웨어 창업 지원
- 개인 및 팀 별 창업입주공간 및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복합 공간 제공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메이커스페이스**



주소 동구 중앙대로 210 부산유라시아플랫폼 1층

주관기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연락처 051-714-6972(3)

운영시간 09:00~18:00

- 분야 : 테크놀로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생활/휴테크
- 3D프린터, 미싱,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 지원
- 부산역 광장의 입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 국민 대상 메이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동명대
메이커스페이스**



주소 남구 용소로46번길 7 청년창조발전소 4층

주관기관 동명대학교

홈페이지 <http://tmakes.or.kr/>

연락처 051-611-1717

운영시간 평일 10:00~20:00

- 3D프린팅(일일 체험, 프로젝트 형)
- 생활공예(천연제품 만들기)
- VR 체험 및 콘텐츠 제작
- 창업인재양성교육
- 1인 미디어(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부산소주
사립부

밀쌀

가공지	신농산업
주소	부산광역시
도량	
농산	
55-33	




돌아와요 부산향애

050 니, 그거 아냐? | 우리 막걸리 이야기

056 누꼬? | 그 집에는 막걸리 귀신이 산다
대한민국 최초 막걸리 명인 유청길

062 거 가봤나? | 골목마다 어린 소박한 정감
감천문화마을

우리 막걸리 이야기



글. 최원준 시인, 음식문화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금정산성토산주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막걸리만큼 든든하게 오지랖 넓은 술이 또 있을까?
민족의 오래된 전통주로 우리네 인생 희로애락을 속속들이 관여하며,
위로하고 응원하고 일희일비하면서 함께한 음식이 막걸리였다.

우리 민족의 성정을 담은 인간친화형 술

마을 어귀마다 주막이 있어 나그네들의 여독을 풀어주기도 하고 농번기에는 바쁜 일손을 한 잔 술로
응원을 하기도 했으며, 마을 대소사에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대동(大同)의 자리를 만들
기도 했던 음식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술꾼들은 막걸리의 따뜻한 성정을 '막걸리 오덕(五德)'으로 예
찬하기도 했다. 취하되 취기가 심하지 않으니 일덕(一德)이요, 시장할 때 마시면 허기를 면해주니 이덕
(二德)이요, 기운이 없을 때 힘을 북돋워 주니 삼덕(三德), 한 잔 술에 기분이 좋아 절로 웃음이 나니 사
덕(四德)이고, 더불어 마시면서 서로의 섭섭한 마음을 푸니 오덕(五德)인 것이다.

조선 초기 대신 정인지는 '젓과 막걸리는 생김새가 같기에, 아기들이 젓으로 생명을 키우듯 막걸리는
노인의 생명을 보전하는 젓줄이라고 논했다. 그 외 문호 서거정 등은 만년에 먹기 편한 막걸리로 밥을
대신했는데 잔병치레 없이 장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막걸리는 다양한 곳에 활용되던 민족의 술이기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맑은술 청주보다
흐리다고 탁주(濁酒), 농부가 참으로 마시는 술이라고 농주(農酒), 집에서 담그는 술이라고 가양주(家
釀酒), 제상에 올리는 술이라고 제주(祭酒), 약으로 쓴다고 약주(藥酒), 일반 백성들이 즐기는 술이라
고 향주(鄉酒)라 했다. 이렇듯 인간친화형 술이면서 우리 민족의 온화한 성정을 지닌 고유의 전통주가



» 누룩 제조과정



» 산성누룩

바로 막걸리였다. 그만큼 '술'이라는 음식의 역할을 뛰어넘어 사람에게 이로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집집마다 달랐던 전통 누룩 막걸리의 맛

우리의 전통주의 역사는 조선시대 제사를 받드는 유교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조상에게 좋은 쌀로 정성들여 빚은 가양주를 제주(祭酒)로 올렸던 것 때문에 명문 사대부 집안과 유력 성씨 종갓집에는 집안의 내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가양주를 전래하고 있다. 문헌상으로 조선시대에만 360여 종의 술이 기록될 정도로 다양했던 술 종류가 이를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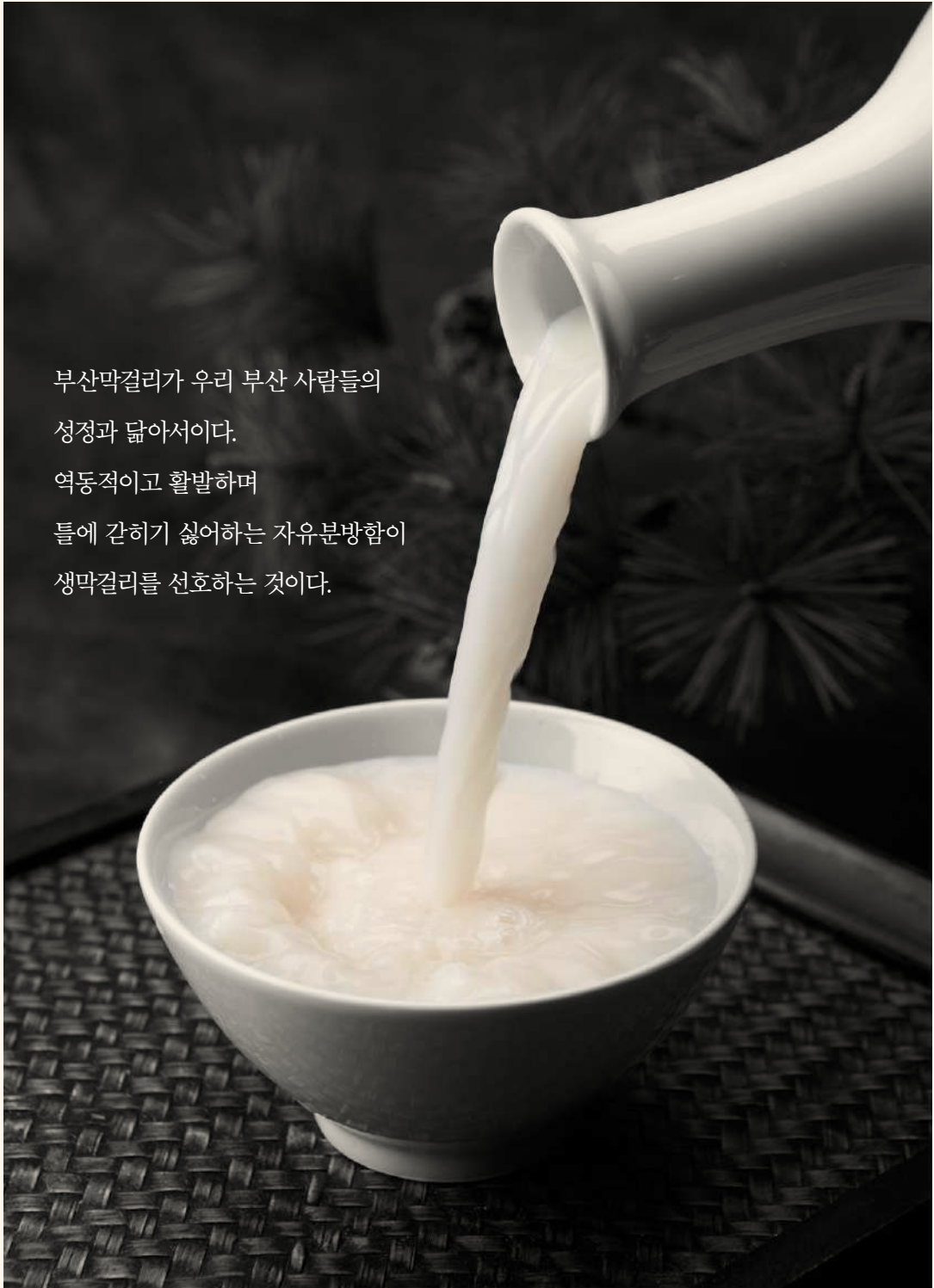
그중 막걸리는 보통 쌀과 누룩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만든 술이다. 발효할 때에 알코올 발효와 함께 유산균 발효가 이루어진다. 쌀이나 찹쌀 등 곡류를 찌서 누룩과 물을 함께 섞어 발효시키고 멩근한 술지게미를 체에 걸러 만든다.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8% 정도이다.

막걸리를 빚는 데 있어 발효를 돕기 위해 첨가되는 것이 누룩인데, 국(麴)이라고도 칭한다. 통밀가루나 기타 곡식가루를 반죽, 떡처럼 멩쳐놓았다가 누룩곰팡이를 띄운 것을 일컫는다.

현재 막걸리는 두 가지 발효 방법으로 만들고 있다. 누룩으로 빚는 우리 전통의 누룩막걸리와 일본식 입국으로 빚은 효모막걸리로 대별된다. 효모발효는 술맛이 일정하고 정제되어 깔끔한 느낌이다.

그러나 누룩발효는 술을 담글 때마다 온도, 습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일정한 술맛을 내기 어렵지만, 그만큼 각양각색의 다양한 맛을 구현해 냄으로써 마시는 재미가 흥미진진하다. 그만큼 오랜 주조(酒造) 기술이 축적되어야만 제맛을 내는 술이기도 하다. 현재는 발효 과정의 편의에 의해 대부분의 주조회사가 입국 발효를 선호하고 있다.

부산막걸리가 우리 부산 사람들의
성정과 닮아서이다.
역동적이고 활발하며
틀에 갇히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함이
생막걸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역사의 변화에 따르는 막걸리의 흥망성쇠

이렇게 만든 막걸리는 새참의 반주를 비롯해서 제사, 마을잔치, 초상 또는 결혼 등 대소사에 두루두루 쓰였기에 면단위로 막걸리 도가가 하나씩 있었다. 막걸리 도가에는 건장한 막걸리 배달부를 3~4명씩 두고 있었는데, 이들은 짐자전거로 하루 종일 마을 곳곳을 돌며 막걸리를 배달했다.

한국전쟁 이후 열악한 식량부족 사태와 1965년에 발효된 양곡관리법은 곡물로 술을 빚지 못하게 금지했다. 대신 수입한 밀가루로 막걸리를 빚게 되면서 본격적인 밀막걸리 시대가 오게 된다. 1973년에는 술도가가 통폐합되기도 했다. 때문에 막걸리 소비는 크게 위축됐고 ‘서민의 술’이란 자리를 소주, 맥주에 내줘야만 했다.

그러나 1999년 주류 독점 판매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주류 면허가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막걸리 산업은 부흥기를 맞는다.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전통주 제조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후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막걸리가 생산되고 고급양조기술을 접목한 고급 막걸리가 탄생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하우스 막걸리 시대’, ‘막걸리의 춘추전국시대’를 구가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자본이 생산한 부산막걸리

부산의 중년 술꾼들에게 회자되던 말 중에 ‘에덴토주’는 올라가면서 취하고 ‘산성막걸리’는 내려오면서 취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산성막걸리와 에덴토주는 부산 모주꾼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대취케 했던 술이다. 그래서 ‘에덴토주’는 하단 뱃머리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에덴공원으로 오르면서 엎어지고, 산성막걸리는 금정산성에서 온천장으로 내려오면서 자빠지게 하는 술이었다. 하여 얼굴에 훈장처럼 큰 생채기 한두 곳 달지 않으면 ‘부산 막걸리 좀 먹어봤다’는 말조차 못 꺼내던 시절이었다.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부산은 동네마다 막걸리집들이 있었다. 해서 부산의 중년들은 술꾼 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터이다. 먼 길 술심부름에 호기심 반 갈증 반으로 술 주전자 주둥이에 입을 대고 한 모금씩 마시다 종내 취해버린 기억들도 있을 터이다. 이렇듯 부산은 술의 도시였다. 때문에 술에 대해서는 은근 자존감이 높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자본으로 큰 규모의 주주회사들이 들어서고 부산에서 생산된 청주와 소주가 전국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막걸리 또한 생산량이 많았었는데 특이한 점은, 막걸리는 제조방법이 까다롭고 제대로 된 술맛을 구현해내기 힘들어 우리 민족자본이 독점적으로 빚었다는 점이다. 우리 부산 술꾼들의 체면을 막걸리가 살려준 셈이다.

1925년 무렵에는 부산의 막걸리업자는 325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박학술이라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1927년부터 영주동에 탁주 양조장인 연수주조장(延壽酒造場)을 설립해 매년 2,500석 이상의 탁주를 생산해 냈다. 부산의 연간 술 소비량도 막걸리가 3만 1,500석, 소주가 2,000석, 일본 청주가 800석으로 막걸리가 압도적이었다.

생막걸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부산사람의 기질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전국의 막걸리 주조 전통이 단절된 가운데 부산만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 숙종 때 금정산성 축조 때부터 빛기 시작한 산성막걸리가 정부의 주세법에 저항하며 밀주형태로 소비되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주세법 위반을 단속하려는 세무서 직원과 누룩과 막걸리를 빚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사람들 간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급기야 산성막걸리 애호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전통방식의 주조법을 이어오게 된 것이다.

부산 막걸리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막걸리가 모두 '생막걸리'란 점이다. 맥주에도 효모균이 살아있는 생맥주와 살균된 일반 맥주가 있듯 막걸리 또한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살균 탁주가 주류를 이루지만 부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는 거의가 생막걸리이다. 이는 부산막걸리가 우리 부산 사람들의 성정과 닮아서이다. 역동적이고 활발하며 틀에 갇히기 싫어하는 자유분방함이 생막걸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식재료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도 하다.

부산 막걸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막걸리 도가

부산의 막걸리 도가는 1980년대 이후 7~8개를 유지해 왔다. 부산 대표 막걸리 브랜드,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전통 누룩발효를 고집하는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인 '금정산성토산주', 일본 수출의 선두주자인 '부산산성양조', 기장군 정관면 '동백양조장', 강서구 미음동 '녹산양조장', 기장군 정관면 '정관탁주제조장', 강서구 봉림동 '김해합동양조장' 등이 있었다. 그 뒤로 가덕도막걸리나 청춘도가, 누룩샘 등이 소규모로 나름 부산의 막걸리 특징을 살린 양조사업을 해왔다.



» 산성막걸리 생산과정

현재 '부산합동양조', '금정산성토산주', '부산산성양조', '동백양조장', '개똥쑥 막걸리', '가마미', '기다림' 등이 저마다의 독특한 생산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해내고 있다. 특히 '부산합동양조'는 1970년 각 지역의 양조장을 하나로 통합시킨 정부 조치에 따라 당시 43개의 부산 양조장들이 모두 합해 만든 회사다. 서울의 서울탁주(장수막걸리), 인천의 인천탁주(인천쌀막걸리), 대구의 대구탁주합동(불로생막걸리) 등이 같은 형태의 술도가들이다. 현재 부산지역 막걸리 생산·유통량의 80%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찰막걸리로 유명한 '부산산성양조'는 일본에 막걸리 붐을 일으킨 도가이다. 1985년부터 일본 수출을 시작한 국내 막걸리 수출의 선두주자이다. '개똥쑥 막걸리'는 기능성 술로 인체에 유효한 개똥쑥의 효능을 막걸리에 접목했다. 영도의 지역 술로도 유명하다. '동백양조장'도 기찰 지역의 생막걸리 보급, 유통의 한 축을 맞아 지역 술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동구 주민들이 '가마미'란 술도를 만들어 부산 최초 고급막걸리를 지향, 생산해내고 있는 '이바구막걸리'와 막걸리양조장 '제이케이크리프트'가 부산에서 생산한 쌀로 100일간의 발효기간을 거쳐 만들어내는 '기다림',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스위트와인과 비견될 정도인 '설화담' 등도 지역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신형 막걸리들이다.

부산막걸리의 현재와 미래

1980년대 민속주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 인기를 끌면서 부산의 막걸리는 한때 주점가의 주류를 이루었던 시절이 있었다. 주세법 개정 이후에는 소규모 주조장 허가가 나면서 부산은 또 한 번 수제 맥주와 함께 '막걸리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부산 곳곳에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가 각 양조장의 개성에 따라 생산되면서 고객의 기호에 맞춰 출시되고 독특한 막걸리 주점이 부산 전역에 성업을 이루고 있다. 또 연효재, 미래내 우리술아카데미 등 막걸리 공방과 막걸리 제조법을 배우는 교육기관들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막걸리 주점들의 운영 콘셉트 또한 각양각색이다. 전이나 묵, 돼지수육 등 토속음식을 내는 옛 주막집, 민속주점 형태에서부터, 젊은 취향의 깔끔한 캐주얼 팝 인테리어에 퓨전음식을 제공하는 곳, 팔도의 막걸리와 명품 막걸리를 제공하는 곳 등 다양하다. 저마다의 콘셉트에 따라 막걸리 전문점, 전통주점, 막걸리바, 한국술집, 전통주바 등으로 주점의 정의 또한 다양하게 명명해놓았다. 이들은 전국의 유명 막걸리를 한자리에 모아 고객의 막걸리 선택의 폭을 넓혔고,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를 전 세계 유명 음식과 결들이기도 한다. 그리고 부침개 전문 막걸리집이라든지 실내포장마차 개념의 막걸리 주점, 지역 막걸리와 지역 향토음식 등을 함께 엮어 운영하는 향토막걸리 주점, 레스토랑이나 바 분위기에 퓨전음식을 제공하는 퓨전막걸리 주점 등 콘셉트를 차별화 하면서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호응을 하고 있다. 이들의 독특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부산의 막걸리 주점들은 다양하고 폭넓은 막걸리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가히 막걸리 주점의 춘추전국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막걸리 도시로서의 부산의 미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한 단초이기도 하다.

그 집에는 막걸리 귀신이 산다

대한민국 최초 막걸리 명인 유청길

글. 박종호 부산일보 수석논설위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막걸리는 1,000종류가 넘는다. 그 가운데 전통 누룩을 사용해 만드는 막걸리는 산성막걸리가 유일하다고 한다. 금정산성막걸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한회사 금정산성토산주의 유청길(61) 대표는 대한민국 최초의 막걸리 분야 명인이다.



500년 역사가 깃든 산성막걸리의 명맥을 잇다

산성막걸리 병에는 ‘500년 전통의 금정산성 자연산 누룩을 자랑한다’는 문구와 함께 전통 누룩방 사진이 새겨져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019년 12월에 발간한 <양조장의 시간 공간 사람> 역시 “정확하게 연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500년 이상 되었다고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며 산성막걸리의 손을 들어준다. 유 대표는 고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자신까지 5대가 ‘금성동 274번지’에서 태어났다. 호적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만 그렇다니….

‘금성동(金城洞)’은 금정산성과 관련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인 숙종 29년(1703)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정산성 축성 공사를 시작한다. 금정산성은 전체 길이 약 17km로 국내에서 둘로 쌓은 가장 큰 규모의 성이다. 성을 쌓으려면 수많은 인부가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산성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성 누룩은 숙종 때부터 이미 이름났다고 한다. 산성마을이 위치한 고산지대 분지는 누룩을 만들기엔 적합한 환경이다. 평지보다 기온이 4도 정도 낮은 분지라 습기가 머물러 누룩 종균이 번식하기에 알맞다. ‘금정(金井)’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산성마을의 물은 누룩을 반죽하고 술을 빚기에 좋다. 산성마을에서 나고 자란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시집온 여성들은 시어머니에게 누룩을 배웠다. 산성막걸리에 누룩을 공급하는 곳이 ‘유가네 누룩’이다. 지금은 어머니 전남선 씨의 뒤를 이어 유 대표의 여동생 미옥·영옥 자매가 동네 여성들과 누룩을 만들고 있다. 일선에서 물러난 전 씨는 “세무서에서 단속을 나와 누룩을 빼앗아가고 벌금이나 집행유예까지 받는 등 별의별 경우를 다 당했다”라며 힘들었던 시절을 회고했다.

누룩으로 길러지고 막걸리로 훈육받은 명인의 삶

변함없이 전통 방식으로 누룩을 만든다. 통밀을 거칠게 갈아 반죽한 뒤 오로지 발로 밟아 피자 반죽처럼 생긴 둥글납작한 누룩 판을 만든다. 사람의 발로 밟아 만들어야 조직이 치밀해져 우수한 누룩이 된다. 누룩을 빚고 나면 섭씨 40~50도의 누룩방에서 일주일간 발효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일주일간 건조한다. 이어서 고두밥과 잘 섞어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6~8일간 기다리면 막걸리가 완성된다. 전통 누룩과 기계식 누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 대표는 “손으로 만져서 만드는 음식과 칼을 많이댄 음식에는 맛 차이가 분명히 있다. 기계가 찍으면 누룩이 힘이 없다. 누룩이 힘이 없다는 것은 끈기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말한다. 유 대표는 어머니가 누룩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판 돈으로 공부를 하고 밥도 먹었다. 집에서는 항상 누룩이 발효되는 쿼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으니 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막걸리에 얽힌 재미난 추억담이다. “중학교 때였다. 방에 있는 막걸리 독에서 진짜 은은하고 구수한 향이 흘러나와 코를 비물었다. 반 독을 비우고 깬는데 하루를 꼬박 자고 다음 날 저녁이었다. 아침인 줄 알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려고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웃었다. 그날 아버지에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았다.”



10년의 노력이 빚어낸 오늘날 금정산성막걸리 브랜드

유 대표의 부친 유봉갑 씨는 온천물이 나오는 양탕장을 관리하는 부산시 공무원이었다. 당초 산성마을에 목욕탕을 만들려고 하다 양조장을 짓기로 마음을 바꾸게 된다. 군수기지사령관 시절부터 산성막걸리를 사랑한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1979년 산성막걸리가 최초의 민속주로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금정산성막걸리는 1980년 공동 양조장과 누룩방을 짓고, 유한회사 금정산성토산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금정산성막걸리가 처음부터 인기를 끈 것은 아니었다. 막걸리를 공동 생산했지만 판매량은 보잘것없어, 유한회사는 유아무야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산성에서 나고 자란 우물 안 개구리였다.

금정산성막걸리를 전국구로 올려놓은 것은 유 대표였다. 마을에서 청년회장을 하며 산성막걸리에 관심을 가지다, 마흔이 되던 1998년부터 대표를 맡아 운영하기 시작한다. 일본 유학을 다녀와 일어 교사와 일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경험도 막걸리회사 운영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술맛을 내기 위해 옛날 책도 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는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4~5년 동안 실험한다고 쏟아 버린 술이 200항아리가 넘는다. 거부감이 없이 술술 넘어가고, 다음 날 숙취 걱정도 없는 그런 막걸리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말한다.

10년을 노력한 2008년부터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막걸리 분야 명인으로 지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식품 명인 제도가 1992년에 생겼는데, 뒤늦게 신청한 이유를 물었다. 유 대표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대답하니 심사위원들이 웃기만 했다. 술 만드는 사람이 술만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바다만 있는 게 아닌, '술 익는 마을'이 있는 부산

유 대표는 명인이란 이름에 걸맞은 고급 막걸리를 올 상반기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쌀은 함양 용추미, 아스파탐 대신 질금 물을 끓여 넣고 도자기에 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산성막걸리를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마지막 남은 소망이다.

그러나 막걸리 세계화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전국의 막걸리 제조업자들 각자가 자기 지역에 맞는 누룩을 개발하면 참으로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일본 베타푸대학에서 발효공학을 전공하고 올해 돌아온 유 대표의 아들 혜수 씨에게 산성막걸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자신은 어깨 너머로 배워 여기까지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학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 대표는 부산시에 '술 익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특구가 되면 지금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산성마을에는 허브나 야생화가 지천이고, 도자기 공방도 있다. 산성마을에서 술도 빚고, 잔도 굽고, 술지게미로 마사지도 하면서 며칠 쉬어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부산에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산에는 산성마을이 있고, 거기에는 막걸리 빛의 명인 유청길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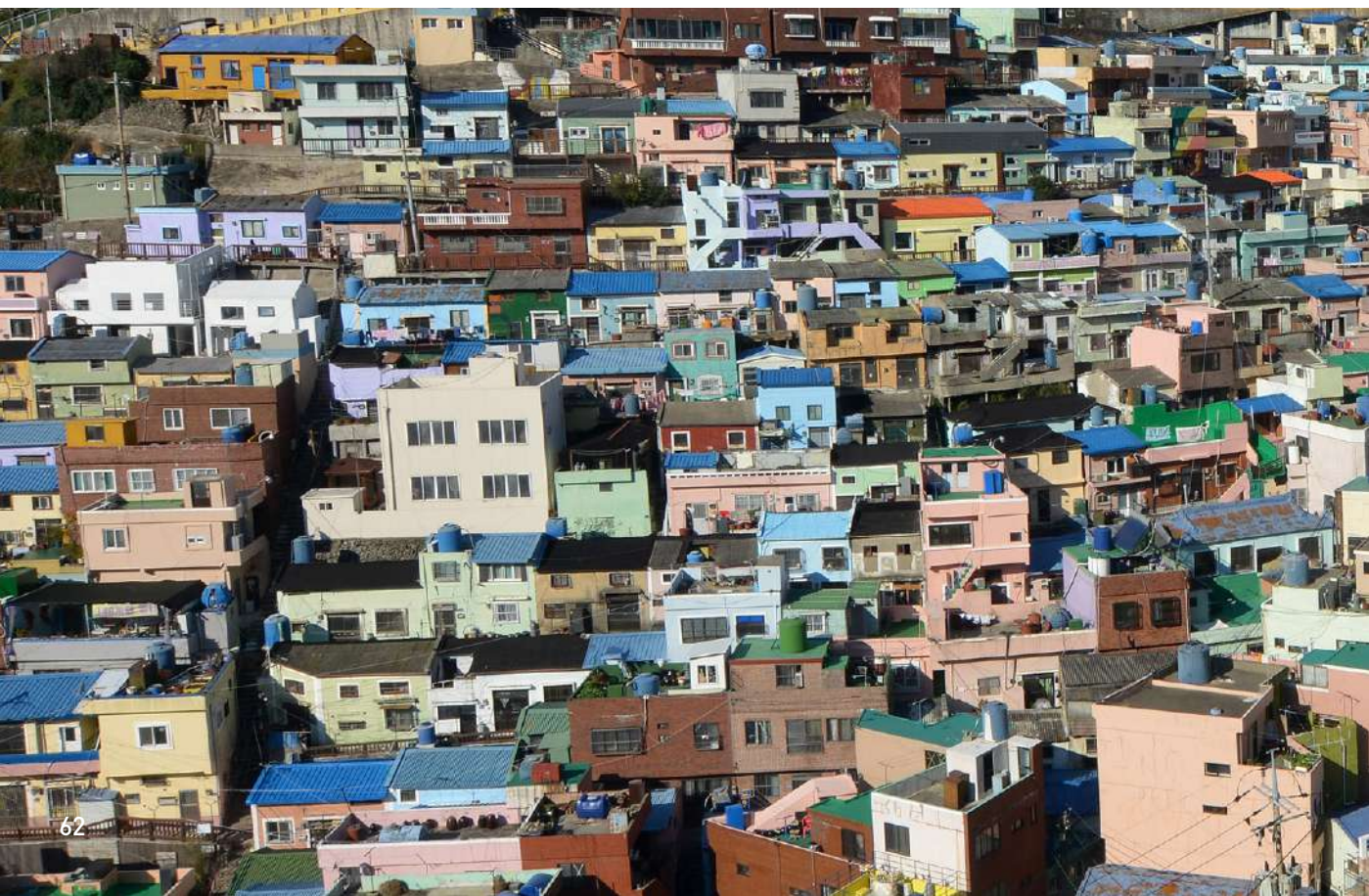




골목마다 어린 소박한 정감 감천문화마을

글.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장

감천문화마을은 원래 1950년대
신흥 종교인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집단촌을 이루었던 곳이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는 태극마을로 불렸다.
거기에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들어와 살면서 지금의 마을이 조성되었다.
외관만 조금 바뀌었을 뿐 마을의 전체 형태는 옛날과 큰 변화 없이 그대로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미로 같아 보이지만 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문화마을만의 특징이다.
부산 역사의 한 권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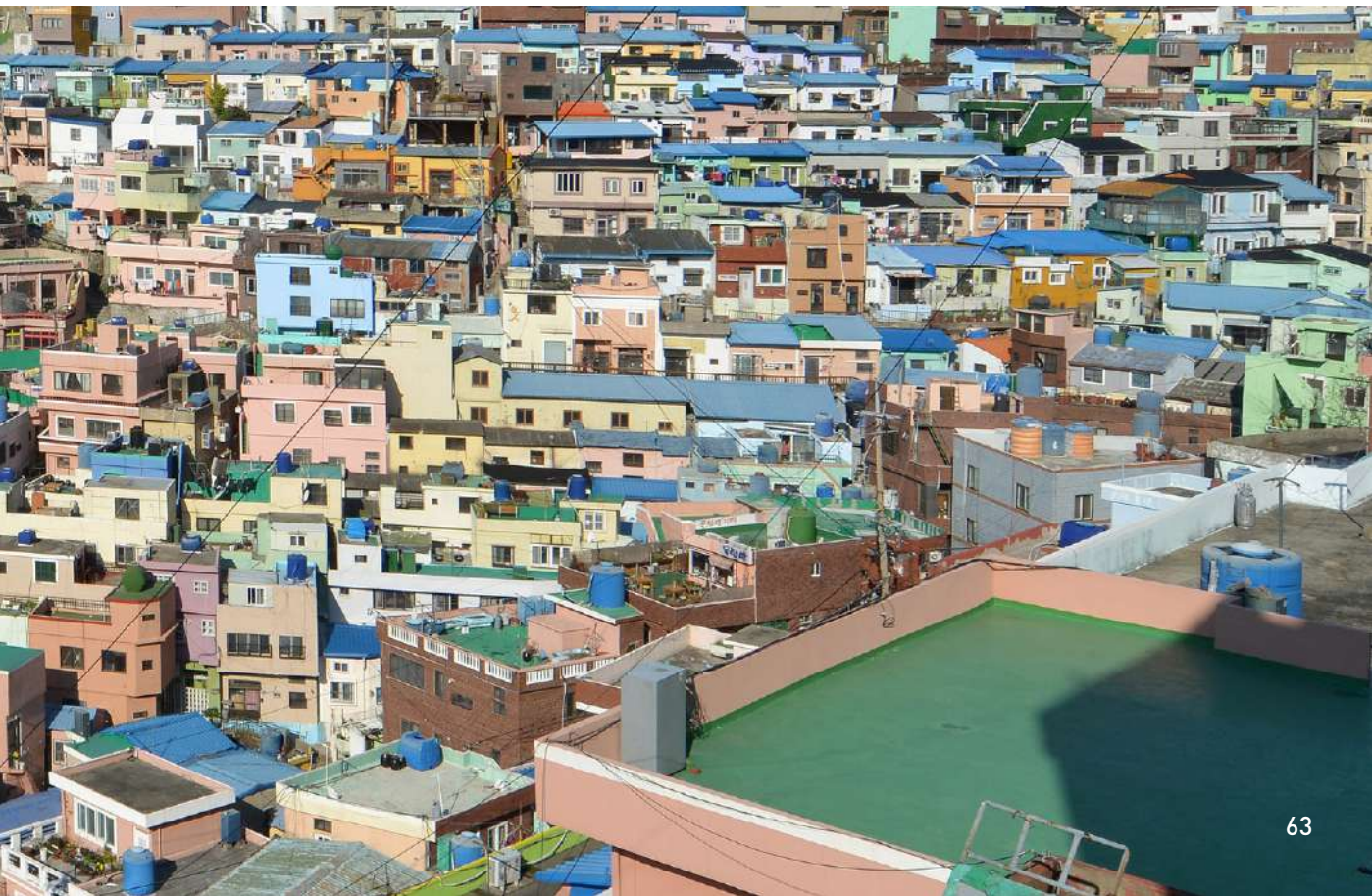
아미고개를 넘어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파른 경사를 일구고 판자촌을 지어
생활의 터를 잡았던 곳.

(중략)

태극마을에는 골목이 많다.
가파른 집들 사이사이로 들어선 골목은
실핏줄처럼 마을 깊숙한 곳까지 이어진다.
골목은 이곳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다.

— 「예술부산」 2014년 4월호 <부산의 골목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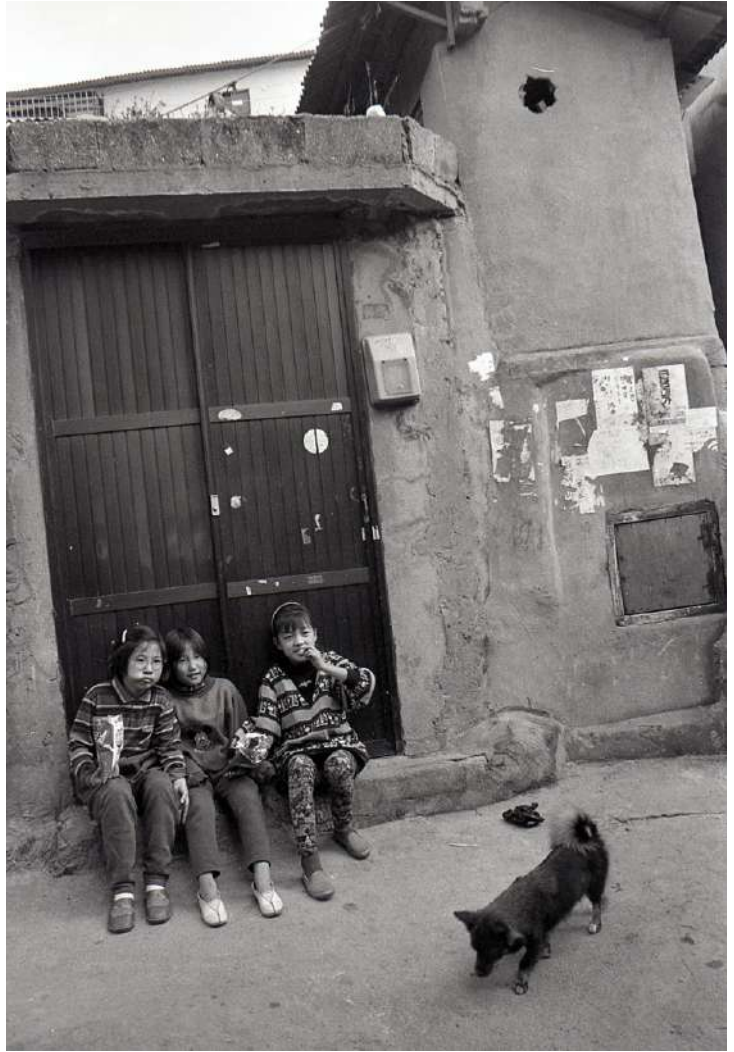
» 감천문화마을 전경





» 1991년 골목에서 마주친 아이들

아이들이 연탄 배달을 하고 있다. 지금 같으면 알바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 장 나르는데 10원, 20원 남짓 받았을 것이다.
판자로 지은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들이 용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은 골목에 모여 놀이를 한다.
요즈음 같으면 학원엘 다니느라 엄두도 못 낼 풍경이다.



» 1991년 골목에서
마주친 아이들



» 1991년 구멍가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주민들



» 등대 트릭아트 계단



» 감천문화마을 계단 난간

SNS를 통해 마을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큰길은 항상 북적인다.
정작 감천문화마을을 제대로 보려면 큰길에서 벗어나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종횡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따라가면 이곳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앞집 옥상의 빨래며 장독대들이 정감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 감천문화마을 풍경



» 감천문화마을 풍경



› 감천문화마을 골목 전경

계단 모퉁이에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관광객을 반긴다.
골목을 가다보면 곳곳에 빈집을 개조한 자그만 예술 공간들도 만날 수 있다.
지독한 가난의 상징이었던 ‘달동네’가 지금은 연 인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민심
이
가
다
는
것
이
다
는
것
이
다

후
를
관
망
하
는
것
이
다

성
생
님
의
창
의

그리고 재단

070 **듣기** |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시민 의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076 **말하기** |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새 이름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시민 의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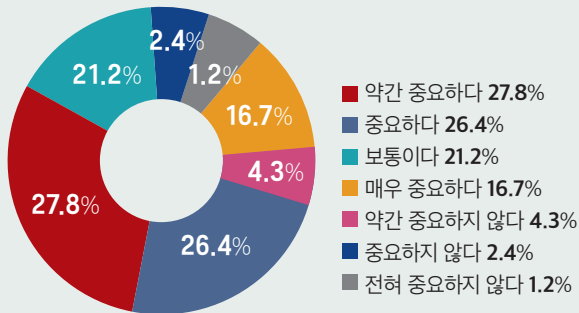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지난 12월, 부산시민과 문화관심집단을 대상으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인식,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내용은 크게 '문화예술의 필요성, 지역 문화예술 환경,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에 대한 인식, 부산문화재단 고객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1. 문화예술의 필요성

삶과 행복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도

전체 응답자의 70.9%(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가 삶과 행복에 있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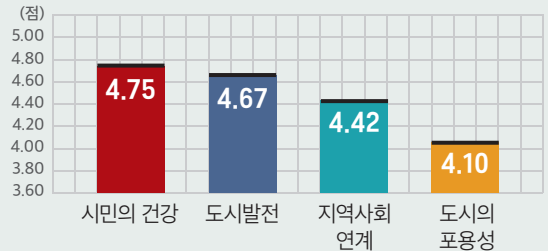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항목별)

항목	전체	시민	일반고객	정책고객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	4.75	4.55	5.29	5.39
우울감 완화에 기여	4.75	4.55	5.27	5.35
대인관계 향상에 기여	4.55	4.37	5.01	5.1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 향상에 기여	4.28	4.05	4.88	4.95
소외계층 사회 참여 향상에 기여	3.97	3.76	4.49	4.64
타인에 대한 편견 감소에 기여	4.22	4.03	4.74	4.74
사회적 역할 향상	4.61	4.44	5.04	5.26
사람과 예술이 만나는 다양한 공간 제공	4.72	4.56	5.16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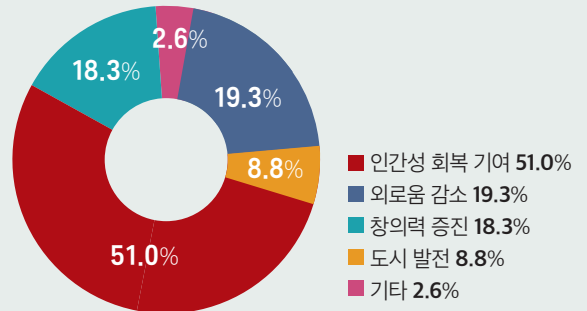
시민의 건강 증진과 우울감 완화라는 시민의 건강 관련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소외계층 사회 참여 향상 및 타인에 대한 편견 감소와 같은 도시의 포용성 차원에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집단별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정책고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시민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차원별)



10년 후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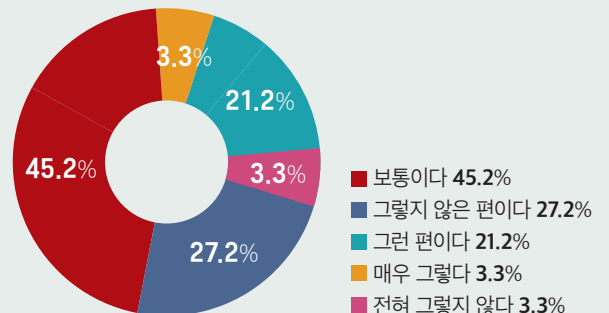
10년 후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인간성 회복 기여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로움 감소 19.3%, 창의력 증진 18.3%, 도시 발전 8.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2. 지역 문화예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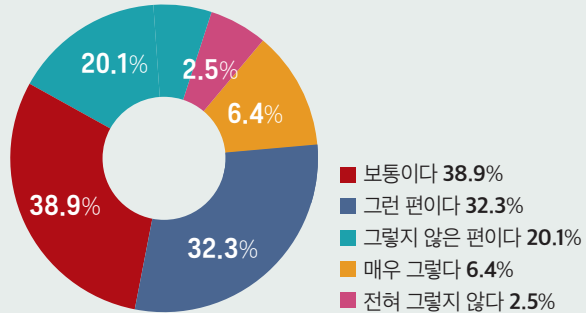
부산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 제공 충분도

전체 응답자의 45.2%가 지역 문화예술 및 참여 기회 제공 충분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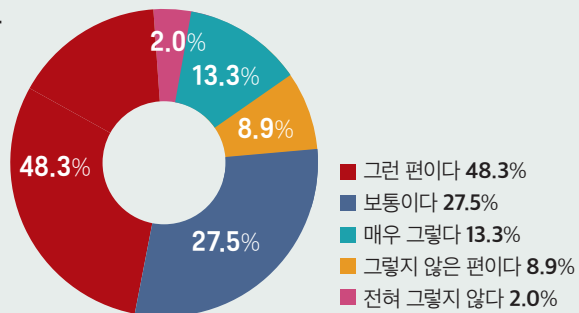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과 문화 간의 공존 여부

전체 응답자의 38.7%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간 공존을 하고 있는 편(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2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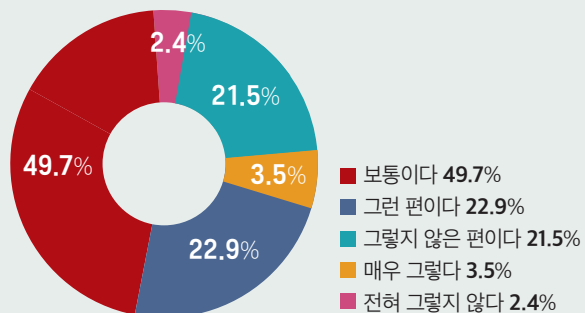
부산 내 문화예술 시설 및 참여기회 제공 등 지역 간 격차 존재 여부

전체 응답자의 61.6%가 부산 내 문화예술 시설 및 참여기회 제공 등에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지역 간 격차가 있는 편(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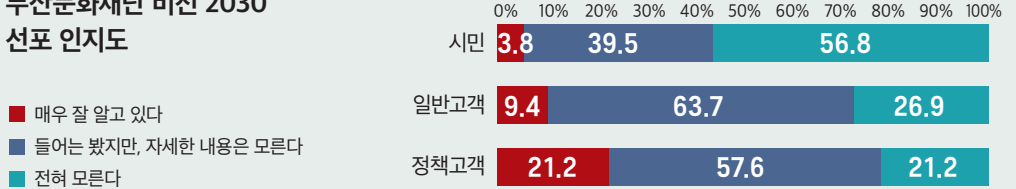
부산의 아시아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도

전체 응답자의 49.7%가 아시아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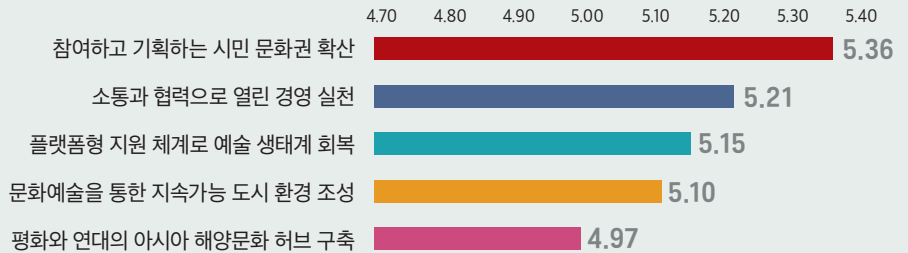


3.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에 대한 인식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선포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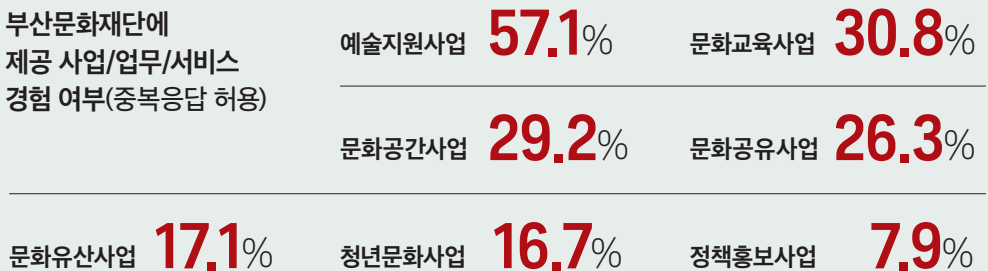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전략과제 중요도



집단별로 살펴볼 때, 시민은 일반고객과 정책고객에 비해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 전략과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은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환경 조성'과 '플랫폼형 지원 체계로 예술 생태계 회복', 일반고객은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 문화권 확산'과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 해양문화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고 평가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4. 고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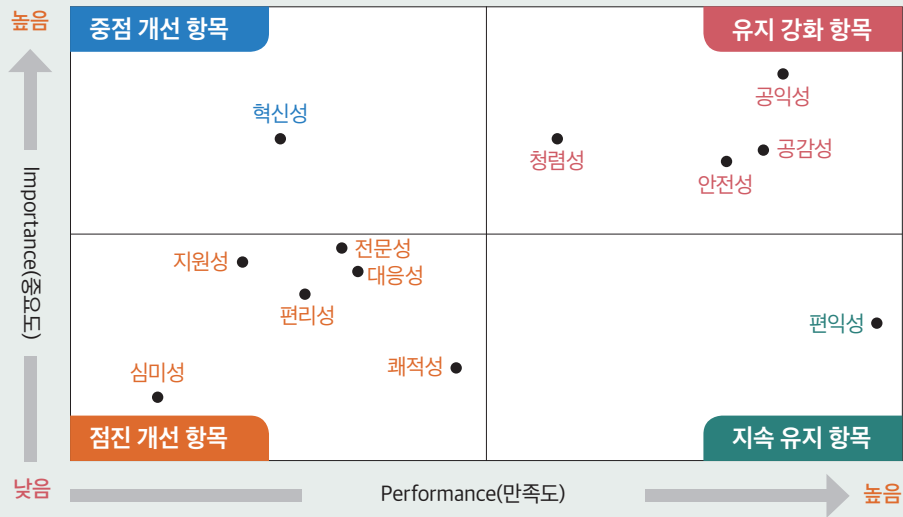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에 제공 사업/업무/서비스 경험 여부(중복응답 허용)



2019년 부산문화재단 외부고객 종합 만족도

(응답자 수: 240명, 7점 척도 평가, 100점 환산)

항목	평가 기준	만족도(점)
편의성	부산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83.02
전문성	관련 업무 처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74.83
혁신성	고객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73.78
대응성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절차가 간소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75.09
지원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73.53
공감성	고객들에 대한 직원들의 응대 태도가 친절하다.	81.35
쾌적성	시설이 전반적으로 쾌적하다. (시설 내 청결 등)	76.68
편리성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안내시설, 직원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74.22
심미성	시설 공간 배치 및 구성이 적절하며, 홈페이지의 메뉴 및 구성이 보기에 좋다.	71.85
청렴성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78.17
공익성	부산문화재단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81.69
안전성	업무상 발생하는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80.56



지수별 고객 만족도 IPA 분석

항목별 점수 및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부산문화재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혁신성 항목에 대한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청렴성과 공익성, 안전성, 공감성 항목에 대한 유지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문화재단에 바랍니다!

고객에게 직접 듣는 부산문화재단 개선점



▶ 조선통신사 축제가 향후 한일관계에 더욱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일본과의 민간교류 부분도 잘 부탁드립니다!

▶ 최근 사업이 너무 생활문화예술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예술 그룹 및 개인의 지원을 위한 고민을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많다고 느껴져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는 예술인들은 컴퓨터 업무가 어려워 사업 지원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동부산에 비해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뒤떨어진 서부산권의 서비스 수준을 서부산권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식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술 활동과 향유가 되는 방법을 원론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내 예술 분야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연대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센터나 콘텐츠센터와 겹치지 않는, 고유한 활동을 실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더 밀접히 결합하면 좋겠습니다.

▶ 부산문화재단의 위치가 부산 전체 시민이 좀 더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다면 재단 이용자들이 부산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능동적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합니다. 시민이 주체가 아니라 방관자 혹은 관람자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연령, 경제력, 교육정도, 관심분야, 국적 등 다양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 예술 전문가 외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많이 열어 주시고, 강사의 검증을 확실하게 하고 홍보 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산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 등 주요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의 가치를 알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기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잘 알리고, 지원 신청 절차를 알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새 이름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글. 정연승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작년 이맘때쯤 예술지원팀에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었다.

어쩌면 10년을 이끌어온 전칭 ‘문예진흥기금’,

바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이 매칭되어 지원되는 형태이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국고보조금 사업이 다수 지자체로 이양되었고, 그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자체가 고려하는 현안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020년 올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건재하다. 아니, 오히려 작년보다 1억이 더 늘어서 총 44억이 전액 시보조금으로 편성되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새 이름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시작이다.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은 6개월 전부터 시작한다. 사업 개선 안건 도출을 위한 회의, 시스템 개선 회의, 예술인 설문조사, 사업 계획 수립, 기초예술창작영역 지원 신청 공모 및 접수까지 전년도에 마무리되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심의 및 결과 발표, 기획특화 및 지역문화심화영역 지원 신청 공모 및 접수, 심의 및 결과 발표까지 선정



» 2019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거리예술분야에 선정된 씨드네이처의 버티컬댄스 ‘참을 수 없는 아름다움’

과정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부터는 교부정산설명회, 선정사업의 교부, 사업 모니터링, 정산점검 등 실사업 수행의 과정이 진행된다.

지역 문화재단 최초 움부즈만 제도 도입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2020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시스템 개선 회의는 각 기초예술 장르 예술인과 함께 총 아홉 번에 걸쳐 진행되어 전년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짚어보았다. 이 회의를 통해 예술비평 장르 및 문화예술공간 창작활동 지원 분야



»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소규모문화예술공간지원분야에 선정된 작은영화공작소 상영회



»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에 선정된 진흥스튜디오 '콜링감만'

신설과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 분야의 이관·통합 등이 결정되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졌던 정년 보장 대학교수의 지원 신청 불가 사항 또한 결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심의시스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심 의지표 중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부분이 추가 되고, 지원자 참관심의제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으로는 처음으로 심의 과정에 대한 공식 이 의 제기 온라인 창구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지침에서 벗어난 이후 예술인에 게 가장 와닿는 변화는 아마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일 것이다.

2017년 처음 도입되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e나라 도움의 명성을 뒤로하고 보조금 교부와 집행이 수월 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프로젝트)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음에도 단체 대표자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던 대표자의 사례비(창작활동비)도 보조금 안에서 편성이 가능하 게 되었다.

무엇보다 부산 예술 현장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지난 1~2월 두 달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기초예술 창작영역의 선정심의를 있었다. 접수된 총 1,057건을 대상으로 행정심의, 작품심사(문학 개인 신청자에 한 함), 서류심사, 종합심사까지 9개 장르 66명의 심의위 원들과 총 22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2월 21일 기초예 술창작영역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기획특 화 및 지역문화심화영역의 심의 및 선정, 신규사업 발 굴 등이 남아있다.

예술지원팀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부산문화재 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 업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이며, 로드맵과 장·단기 과제 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지역예술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무엇보다 지역예술인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부산문 화예술지원사업'은 조금 더 부산 예술 현장에 맞게, 조 금 더 부산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맞게 그렇게 시작하 고 있다.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리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토통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민주공원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1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 (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민주공원,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배포처 문의 : T. 051-745-7224 E-mail. bscf@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최정민 - 나를 위한 나의 의무 2019

